

## 산업소설 『매리 바튼』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천 지 현

### 1. 머리말: 산업소설로서의 『매리 바튼(Mary Barton)』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산업소설이라 불리우는 여러편의 소설들이 발표되었다. 이 소설들의 공통점은 이제 자리잡기 시작한 산업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와 동시에 산업사회가 물고온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 소설들이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다루는 방식은 한세기 이상의 기간이 지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엄청난 인식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한국에서 발표되는 이른바 노동소설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 쉽게 말하자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현실의 필연적인 발전법칙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전혀 없이 자연주의적 묘사만을 나열하다가 비현실적인 전망만을 제시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점에서 가능한 것일 터이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보면 산업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문학적 접근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계급의 삶을 문학작품에 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 소설들은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산업소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디즈레일리(Disraeli)의 『씨빌(Sybil)』(1845), 킹슬리(Kingsley)의 『알톤 록(Alton Locke)』(1850) 등과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엘리자베스 개스켈(Elizabeth Gaskell)의 『매리 바튼(Mary Barton)』(1848)을 들 수 있다. 작가인 개스켈은 유니테리언교회의 목사인 윌리엄 개스켈(William Gasakell)과 결혼하여 당시 공업의 중심지였던 맨체스터(Manchester)지방에서 살면서 그곳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녀는 실제로는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는 한편, 그들의 생활을 소설로 형상화하여 당시로서는 거의 최초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문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녀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특히 『매리 바튼』은 「맨체스터 생활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하여 주듯이 맨체스터의 한 노동자의 가정을 중심으로 1840년 전후의 그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충실히 그려낸다. 특히 당대의 상황에 대한 성실한 반영이나 노동자 가족의 가난과 고통, 그로 인한 좌절과 분노에 대한 생생하고 공감어린 묘사에 있어서 『매리 바튼』은 그 어느 산업소설에도 뒤지지 않는 탁월함을 지니고 있다. 산업소설이 영문학사에서 갖는 의미와 이 작품이 산업소설로서 지니는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소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설의 내용을 지극히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매리 바튼의 아버지 존 바튼(John Barton)은 노동조합의 열성적인 회원으로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몸으로 겪으면서 그러한 상황을 낳은 산업사회의 모순

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느낀다. 1839년의 불경기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자 노동조합은 파업과 함께 자본가들과의 협상을 시도하지만 조합측의 요구는 묵살당하고 오히려 자본가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결과에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은 자본가들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했던 젊은 자본가 해리 카슨(Harry Carson)을 암살하기로 결의한다. 비밀투표에 의해 존이 암살자로 지정되자 존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여 해리를 살해하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뇌를 겪는다.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리가 매리와 교제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오래전부터 매리를 사랑해온 이웃청년 잼 윌슨(Jem Wilson)이 용의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자신이 잼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던 매리는 아버지가 범인임을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잼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결국 그녀의 이러한 노력의 덕분에 잼은 혐의를 벗고 풀려나지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존은 스스로 해리의 아버지 카슨에게 자신이 살인범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카슨은 마음의 갈등을 겪은 후 존을 용서하고 존은 그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둔다. 이후로 자본가인 카슨은 노동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매리와 잼은 결혼하여 캐나다에 이주한다.

위와 같이 대강의 줄거리만 훑어보아도 이 소설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그들의 요구를 다룬 전반부와 살인사건 이후의 매리의 행동을 다룬 후반부로 확연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많은 비평가들이 작품의 이러한 이중구조에 주목하여 이를 작품의 결정적인 결함으로 지적하면서, 도덕적인 이상과 그에 따른 결말을 제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개입하여 이러한 현상을 낳은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sup>1)</sup> 물론 소설 내의 단절이 문학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이나 작가의 도덕성에 대한 호소가 다분히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차원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만으로는 처음에는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다가 나중에는 작가의 의도가 개입하여 일을 그르쳤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평가에 머무르기 십상이다. 꼼꼼히 생각해 보면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관통하는 작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을 것이고 작품 내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작가의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태도의 결함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품 내의 사실적인 묘사가 이룩한 공과를 따져볼과 동시에 작품의 결함을 작가의 인식 상의 한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산업소설로서 『매리 바튼』의 성과와 그 한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의 성취

이 소설은 어느 휴일 그린헤이즈 들판이라는 한가로운 교외에서 존 바튼이 오랜 친구인 조지 윌슨(George Wilson)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평화로운 봄날 두 가족의 나들이와 반가운 만남은 다분히 목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곳은 거리상으로도 맨체스터의 공장지대로부터 불과 2마일 떨어져 있을 뿐이며 가난한 노동자들의 걱정근심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주로 그들의 가난과 빈부격차, 부자들에게

1)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비평가로는 Raymond Williams와 John Gross를 들 수 있다.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1780-1950*(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8), pp.100-1. John Gross, "Mrs. Gaskell," *The Victorian Novel: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Ian Watt(London: Oxford Univ. Press, 1971), pp.221-2. 참조.

대한 불신과 분노에 관한 것이다. 존의 명백한 불만에 비해 비교적 인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윌슨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존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갖는 티파티도 그 화기에애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가난으로 인한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서로 돕고 위로하는 노동자들의 온정과 건강한 활력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명확하다. 더구나 불경기로 인하여 실업이 만연하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극도의 비참함을 겪을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는것인데, 작가는 그 단적인 예를 대븐포트(Davenport)라는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준다.

병으로 누워 있는 동료를 돕기 위해 찾아간 존의 눈에 비친 대븐포트 집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하는 것이다. 그의 집이 있는 슬럼가도 극도로 빈한하고 더러운 곳인데다가 집안 또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실내는 대단히 어두웠다. 유리창은 대부분 깨어져 누더기로 막아 놓았는데, 이 때문에 한낮에도 이곳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들어올 뿐이었다. 거리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미 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이니, 대븐포트가 거주하는 지하실로 들어가다가 악취가 너무나 독하여 두 사람이 거의 쓰러질 뻔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일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 늘상 그러하듯이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곳의 칙칙한 어둠을 뚫고 축축한, 아니 완전히 젖어 있는 벽돌바닥에 서너명의 아이들이 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바닥을 통하여 거리에 고여있는 더러운 습기가 스며 올라왔다. 난로는 시커멓게 텅 비어있었고, 부인은 남편이 누워있는 옆에 앉아 어둠 속에서 외롭게 울고 있었다.<sup>2)</sup>

위와 같은 장면은 맨체스터에 살면서 목사의 부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항상 그들을 방문하였던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루지 못했을 사실적인 묘사의 성과를 증명해준다. 엥겔스(Engels)가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에서 상세히 서술한 대도시 슬럼가와 그곳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비참함이 작가의 공감어린 시선으로 정확히 포착되어 있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사실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노동계급의 태도를 존의 입을 통하여 대변해주며, 작가 자신도 피상적인 현상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적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비인간성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존은 그를 종교적인 형제애라는 말로 설득하려는 윌슨에게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자네는 이렇게 말하겠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나. 그들에게 자본이 있고 우리에게겐 없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자본이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이익을 얻어 내야 하는거야. 우리의 자본이 할일없이 놓여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어찌해서든 그들의 자본으로 이익을 얻고 있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겠나? 게다가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네. 카슨도 그랬고 던컴도 멘지도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도

2) Elizabeth Gaskell, *Mary Barton*(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58), p.54. 앞으로의 본문 인용은 이 책에 의하여 그 면수만을 밝힘.

3) 엥겔스는 청년시절 영국에 머무르면서, 1844년 전후의 그곳 노동계급의 상황을 상세히 서술한 바 있는데, 그의 서술은 시기적으로도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때와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내용 상으로도 작품에 나오는 묘사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Friedrich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in 1844*(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87)

맨체스터에 처음 왔을 때에는 겨우 입을 옷밖에 없었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우리의 노동으로 이득을 보면서 그때보다 수천 수만배 재산을 불렀네. 이십년 전에는 불과 육십 파운드에 팔리던 바로 그 땅이 지금은 육백 파운드가 나가는데, 그것도 다 우리의 노동 덕분인 걸세. 그러나, 이봐, 나를 보게, 그리고 저 불쌍한 대븐포트를 봐. 우리는 뭐가 나아졌는가? 그들은 한 재산을 벌고 멋지고 큰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저 밑바닥 말뚝에 매어 놓지. 그동안 우리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은 굶어죽고 있는걸세. 이런데 자네는 아무것도 잘못된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p.60.)

이러한 존의 발언은 자본가들의 착취에 대한 노동계급의 전반적인 느낌을 적절히 표현해주는 부분일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반감을 전달해 주는 데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급 간의 적대감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노동계급의 운동이 정치성을 띠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준다.

그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한가지 생각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차티스트와 함께 시작되었으나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이 어여쁜 아이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게 된 생각이었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비참함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차라리 한 국가의 실제 사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나라의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 게다가 굶주리는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의회에서 부인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이 이상하고 불가해한 일이라고 느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비참함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개선책이 발전되리라는 생각이 그들의 쓰린 마음을 달래주었고 그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혀 주었다.(p.79.)

위와 같은 노동계급의 일반적인 견해는 소설 내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상을 의회에 알리기 위해 존이 조합의 대표로 런던에 가는 사건으로 구체화된다. 작품 내에서 존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Trades' Union)이 역사적으로는 1829년 이전의 동직조합(Trade Union) 차원의 단위 노조와 구분되는 어느정도 정치성을 띤 전국적인 규모의 단일한 조직이었다는 점과 차티스트운동의 진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sup>4)</sup>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건의 전개가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런던에서의 노동자들의 청원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맨체스터로 돌아온 존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당하고, 실업과 저임금, 물가고 등으로 노동계급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의 모순을 인식하고 '공산주의자로, 차티스트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대목은 그가 당대 선진적인 노동자의 한 전형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또한 작가는 존이 아내의 죽음과 거둬지는 좌절로 인하여 점점 음울해져 가는 모습을 함께 그리면서도 존의 이러한 변모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 그의 계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준다. 자본가들의 착취에 맞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작가는 그 정당성 자체를 의문시하지는 않는다.

### 3. 작품의 이중구조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유지되어 오던 작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공감이 줄어들

4) 시드니, 베아트리스 웹, 『영국노동조합운동사 상』, 김금수 옮김(서울: 형성사, 1990), p.127 참조.

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파업파괴자들(knob-sticks)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노동조합의 대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비참한 상황에서 산업예비군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빈민들의 처지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하여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합 측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같은 노동자들이 서로 적대시하게 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은 작품 내에서도 존이나 그의 동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들의 반성은 이러한 고통을 가져온 자본인은 자본가들이며 자신들이 대항해서 싸워야 할 대상도 자본가들임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아니오! 나는 겁장이가 아니요.” 그(존)는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철두철미 진실된 사람ियो.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고용주들과 싸우는 일일 것이요. 당신들 중에는 나를 겁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소. 쏘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는 있소. 그러나 나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생각해 본 이래로, 우리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더욱 겁장이 같았다고 생각해 왔소. 그들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황산염과 굶주림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요. 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더욱 겁장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오. 안돼오! 내가 할 일은 이런 것이요. 고용주들을 공격하는 것!” 그는 다시 외쳤다. “고용주들을 공격하라!” (p.182.)

결국, 조합 측의 협상 시도가 자본가 측의 거부로 실패하자 조합은 이러한 인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결의한다. 자본가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해리 카슨을 암살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존이 암살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이 소설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작품 내에서 존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이야기의 중심이 그의 딸인 매리에게로 넘어온다. 인물 상으로도 중심이 바뀔 뿐 아니라 이후의 사건은 억울하게 살인자로 지목된 켄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매리의 활약과 그 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다분히 멜로드라마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작품 구도 상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중산계급인 작가의 계급적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당시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테러행위는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작품내에 암살이라는 사건을 끌어들이는 것은 당시 중산계급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폭력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윌리엄스의 견해는 이 사건이 작가의 능력으로 다루기에는 버거운 소재였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작가의 문제의식을 중산계급으로서의 피해의식 차원으로 손쉽게 처리해버리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리는 감이 있다. 작가는 존이 암살을 하기 직전에 길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는 사건을 통하여 그가 아직 인간적인 미덕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삼 강조하는데, 이러한 작가의 태도가 소설 속에서 노동자들의 모습을 야만적이고 짐승같다고 매도하는 자본가들의 태도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는 암살이라는 사건 자체도 비록 흔치 않은 극단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모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 여겨지며, 이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실제로 비슷한 사건

5) Raymond Williams, 앞의 책, PP.101-2 참조.

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바이다.<sup>6)</sup> 작가는 이러한 전형적인 소재를 도입함으로써 당대의 상황과 정면으로 부딪혀 존의 행동의 옳고그름을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작가가 조합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인도할 '현명한 의지'가 없음을 걱정하던 대목(p.166.)을 고려해 보건대, 이후의 사건 전개를 통하여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현명한 의지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듯 싶다.

#### 4. 매리의 성숙과 그 의미

물론 이후로 전개되는 매리의 행동이나 그녀의 정신적인 성숙 과정은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 자신과 같은 계급에 속하는 켄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눈뜨기 전에 매리는 해리와 사귀면서 그와의 결혼이 가져다 줄 부유한 미래에 대하여 꿈을 꾸다. 그녀가 이러한 꿈을 꾸는 주된 이유는 아버지 존을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바람에서이다. 그러나 그녀의 동기가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귀부인이 되고자 하는 막연한 허영심이 그녀에게 있었음도 확실하며 이는 세속적인 신분상승 욕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매리의 이야기와 다른 계급의 남자와 결혼을 해 도망쳤다가 결국은 창녀로 전락하는 매리의 이모 에스더(Esther)의 이야기를 병치함으로써, 매리의 장래에 대한 꿈이 백일몽에 불과함을 알려준다. 특히 매리가 자신이 진정으로는 켄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해리와의 만남을 거부하자 해리가 보이는 태도는 그가 매리를 한때의 희롱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알려준다. 그는 매리가 자신의 결혼제안을 끌어내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렇다면 할수없이 결혼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까지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품은 적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해리의 속성을 명확히 인식한 매리의 반응은 서운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것이며,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의 거짓됨을 경멸하고 비난한다.

“당신 생각을 제게 말해주셔서 고맙군요. 당신은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내 정말로 당신이 저와 결혼하려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는 못하겠다고 느꼈지요. 여태까지 저는 제가 당신과 그렇게 깊이 사귀었던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겠어요. 제가 이전에는 당신을 사랑했더라도, 당신이 저를 망치려 했다고 제게 말해주신 지금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결혼하실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를 망치려 했다는 게 아닌가요. 죄송하다고, 겸손히 당신의 용서를 빈다고 제가 말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경멸합니다. 당신은 불쌍한 소녀를 망치려고 계획했던 것이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pp.130-1.)

자신이 켄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해리의 집요한 구혼을 거부하는 단호함과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해리를 비판하는 모습은 매리가 도덕적으로 성장해갈

6) Friedrich Engels, 앞의 책, p.230 참조.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인물임을 말하여준다. 더우기 해리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노동자인 켄의 결모습만 보고 켄을 무시하는 데에서 엿보이듯 자본가들의 오만함과 계급적인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매리의 비판은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살인사건 이후로 그녀가 켄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멜로드라마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이기까지하다. 물론 이 부분은 매리가 여러가지 모험을 하는 과정을 길게 서술함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는 그녀의 바람직한 변모는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독자들에게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켄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매리는 빅토리아조의 여성들에게 당연한 미덕으로 부가되어 왔고 그녀 자신도 이제까지는 벗어나지 못했던 소극성을 극복하고 '위엄과 자기신뢰, 결단력'(p.251.)을 획득한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과 각성은 켄의 석방과 그들의 맺어짐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존이 한 살인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이며, 그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5. 행복한 결말과 갈등의 해소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존이 돌아와 역시 자본가인 해리의 아버지 카슨에게 자신이 진범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처음에는 복수심과 증오만을 보이던 카슨이 종교적인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존을 용서함으로써 이야기가 결말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결말이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갈등의 해소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며, 앞서 살펴본 현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 없는 도덕적 설교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고귀한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 이외에는 작가가 매리의 모습을 통하여 제시하려 했던 도덕적 교훈이 이러한 결말과 별 관련을 맺지 못한다는 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소설의 결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빠진 결말을 비판하는 것이 작가가 소설 속에서나마 실현시켜보고자 했던 도덕적인 이상, 즉 공감과 인류애, 소외의 극복과 같은 이상 자체에 대한 회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류애의 회복이라는 도덕적인 이상에 굳이 기독교적인 설교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지도 의문인데, 왜냐하면 작가의 이러한 이상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을 서술한 엥겔스의 입장과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에서 영국 내의 대도시들의 모습을 묘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리의 바로 그 혼란함에는 무언가 불쾌한 것,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무엇인가 있었다. 서로 스쳐지나가며 뿔뿔해는 모든 계급과 지위의 수천 수만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관심을 지닌 인간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 모두가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단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sup>7)</sup>

과학적인 사회주의적 관점에 서있는 엥겔스의 위와 같은 언급은 그의 문제의식과 작가의 그것이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작가의 입장을 단순히 관념적인 인본주의라고 재

7) 같은 책, pp.68-9.

단해 버리는 것은 온당한 비판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상적인 경지를 상정했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현경로를 제대로 파악해 냈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노동계급의 편에 서서 작가가 제기하였던 산업사회의 모순이라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839년에서 1842년까지의 최악의 불경기가 지나고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안정된 1848년에 이 소설이 발표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비록 작가가 의식을 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점 이후의 변화에 대한 판단이 결말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존이 카슨의 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얼마 지나서, 카슨은 존의 이웃인 줍리이(Job Legh)와 켄을 만나 살인 사건의 동기와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묻는다. 이제까지는 작품 속에서 그리 길게 말한 적이 없었던 줍이 존의 심정을 상세하게 대변해 줌으로써 시작되는 그와 카슨의 대화가 일종의 후일담 형식으로 제시된다. 방직공이면서 자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줍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소설 내에서 가장 건전한 상식과 지혜를 지닌 인물로 부각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에서의 줍의 발언이 작가의 입장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존의 심정을 줍이 대신하여 설명하던 중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자본가들이 무관심했다는 점이 지적되자, 카슨은 그것을 자본가들의 힘으로 어쩔 수 있겠느냐며, 전형적인 자유방임론을 펼친다.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찌할 수 있겠소? 우리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은 어떤 개인도 어떤 집단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오직 하느님만이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요, 우리의 상품을 사줄 시장이 없으면 우리도 당신들 만큼이나 고통을 받아요.”

“확실히 우리만큼은 아닐 겁니다, 선생님. 저는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그것만은 확실히 압니다. 제가 학식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있답니다. 저는 고용주들이 음식이 모자라 야위고 초췌해지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불경기면 틀림없이 생활방식을 바꾸기야 하겠지만, 별로 많이 바꾸는 것을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것은 사치품이지요. 그러나 나같은 사람들로 치자면 우리들이 바싹 줄여야 하는 것은 목숨이 걸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일을 하려하는데도 일자리를 전혀 구할 수가 없는 지금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은 선생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존 바튼처럼 얘기하지야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건 명백합니다.”(p.372.)

위와 같은 줍의 말을 통하여 작품의 관심은 처음에 제기되었던 문제로 돌아간다. 당대 사회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빈부의 격차나 노동자들의 비참함, 그에 대한 자본가들의 무관심과 같은 문제점들이 다시 지적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사건을 겪은 뒤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문제제기일 수만은 없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나 대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터이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줍의 주장이 그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그 대안이 산업사회 이전의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식의 복고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정도는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말로, 동력 방직기가 나타났을 때는 수동 방직공들에게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그 최신의 것들이 인생을 마치 제비뽑기처럼 만들어 버렸지요. 그러나 저는 동력 방직기와 철도, 그리고 그러한 모든 발명품들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저는 살만큼 살아서 더 높은 차원의 선



을 가져오기 전에 고통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 정도는 압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행복하게 자신의 환경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신 사람들이 그 고통의 짐을 가능한 한 많이 덜어주어야만 한다는 것도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임에 틀림이 없지요. 물론 이런 일을 어떻게 할지를 풀기 위해서는 저나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느님께서 즐기라고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와 함께 해야 할 의무도 주신다는 것이지요. 행복한 사람들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이구요.” (p. 373)

기독교적인 용어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선에 앞서 고통이 먼저 온다는 논리는 산업 사회의 역사적 필연성을 인정하고 그 사회 내의 모순 속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변증법적인 논리와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좁은 현실의 모순 속에서 찾아낸 대안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배풀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머물고 만다. 이러한 좁은 주장이 작가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은 명확하며, 결국 소설 내에서는 카슨이 그 누구보다도 자비로운 자본가로 변모함으로써 작가가 주장하는 해결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이 현실에서도 실현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은 미루어 놓더라도 자본가 측의 자선이라는 것이 노동계급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산업사회의 본질적인 모순, 인류를 서로 적대적인 두 계급으로 갈라놓은 자본주의적 모순은 그대로 두고 다소간의 물질적인 여유에 안주하는 노동계급의 경제주의적 개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작품의 행복한 결말은 작가가 이러한 식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개량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필자는 작가와 엥겔스가 현상을 보고 느낀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엥겔스가 노동계급의 목적의식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지향했던 것과 대비되어 작가의 결론은 정반대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 둘의 결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 작가가 노동계급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6. 맺음말: 인도주의적 시각의 한계와 제3세계적 인식의 필요성

작가가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비참함을 공감어린 시선으로 묘사하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생겨날 수 밖에 없음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 필연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노동운동을 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한다. 예를 들어 작가는 런던에서 파견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선동적이고 억압적인 존재로 묘사한다거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목적의식적인 노동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작가의 인식 상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존이 한 살인 행위도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아무도 그 동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단순히 극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이라고만 여기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는 이 사건에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사태로만 설명하려는 작가의 태도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당사자인 존도 인명을 해쳤다는 사실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와할 뿐 그러한 폭력을 낳았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더이상 고려해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흐름 상으로 그러한 사건이 불가피한 돌파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존의 행위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더욱 강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노동계급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그러한 도움이 그들 스스로에게서가 아니라 카슨과 같은 자본가의 태도변화로부터 올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판단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노동계급이 주장하는 바의 정당성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 머문다고 파악한다면 그 해결책이 개량화인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또 실제 역사는 이후로 영국의 노동계급의 운동이 작품의 결말에서처럼 경제주의적인 조합주의로 흘러갔음을 말하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은 영국 내적으로는 1847년 이후의 호경기와 그와 맞물린 차티즘의 쇠퇴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으로 인하여 영국 노동자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정작 노동자들 자신이 더이상의 큰 불만이 없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나 노동계급의 임무를 논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 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리는 일은 영국 내부의 사정에만 고정된 시각으로는 불가능하리라 여겨진다. 1847년 이후 영국경제의 호조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영국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진출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설 내에서 카슨이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호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그의 자비심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닐 것이며, 그 이면에는 틀림없이 제국주의 진출로 인해 한결 여유로워진 자본가계급의 상황이 뒷받침해 주고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카슨의 자비로 생활 상의 여유를 찾아가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식민지에 전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영국사회의 내부적인 모순이 극복된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이 제3세계로 고스란히 아니 더욱 심각한 상태로 옮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매리와 잼이 결혼하여 캐나다로 이주한 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작가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영국 내부의 모순이 그 안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식민지 개척의 형태로 외부에 전가됨을 엿볼 수 있다. 더우기 잼은 전문적인 기술과 발명특허를 소유한 소위 엘리트 노동자인데, 그의 이러한 기술이 캐나다에서 다른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리라는 점도 짐작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작가는 이러한 잠재적인 현실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작품의 결말을 더이상 근심걱정이 없는 지고의 행복한 상태로 제시한다. 결국 노동계급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공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했던 작가의 한계가 제국주의적 상황에 대한 무반성적인 태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산업소설로서의 『매리 바튼』이 이룩한 역사적인 의의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